

오피니언

다산포럼

강명관



'맹자'의 첫머리에 양혜왕과 맹자의 대화...

은, 임지로 떠날 때 임금 앞에서 지방 행정의 요체인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외어야 하였다.

노비를 낳으란 말이나

중요하게 여겼던가를 알 만하지 않은가. 선정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호적에 그대로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줄어든 호구도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양혜왕이 인구의 증가를 바란 것과 수령칠사에 '호구증'이 들어 있는 것이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

줄 군사가 될 존재가 곧 백성이었다. 백성이 늘어남은 왕과 양반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었다. 호구증을 주둔한 내심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도저히 생활이 안 되기에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 핵가족시대에 누가 키울 것인가?

인구를 늘릴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맹자의 말을 들어보자. 백성들을 전쟁과 부역에 몰아넣지 말고 편히 농사짓게 하여, 그들이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입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영·호남 격차 키우는 '5+2 광역경제권'

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영·호남 간 정부 지원 예산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의원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올해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382억원으로 영남권 656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도 낙동강 위주로 편성됐으며 대규모 국책사업도 영남위주로 배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상권 보호, 말 대신 행동 보여라

광주지역 상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생존권과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SSM(슈퍼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골목상권까지 붕괴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지키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2004년 할인점이 247개 늘어날 때 세계 소매상은 8만개가 감소했다. 그래서 '대형마트 1개 생기면 동네슈퍼 300개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문상필



모두가 잘사는 사회,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21세기 사회복지의 목표가 됐다. 이는 곧 어려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었다.

구나 처음엔 심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절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사가 절망적인 사고와 돈 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재활이 되겠는가?

사회복지사는 희망이고 꿈이다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식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인식들로 인해 많은 업무에도 그에 따르는 처우 또한 열악한 편이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은 다르게 변해 있을 것이다.

기고

정종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농업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 상승폭이 0.74℃인 반면, 한반도는 1.5℃에 달했다.

돼 있다.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바다로 흘러 보내지 않고 눈에 가두게 되면 고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지하수원이나 산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농촌은 국토의 정원사

자원 지형을 변형시키고 있어,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피말리는 '식량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농촌은 환경보전의 역할을 한다.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으며, 생태계 유지를 위한 환경보전도 가능하게 한다.

'자원봉사' 베푸는게 아니라 나눔이다

최근에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봉사를 통해 느낀 점은 봉사활동이 막연한 선행대기식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병으로 모셨고 그 후 할머니는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우리와 만나고 계신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은 '이 사회에는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구나'하는 것이다.

無等鼓

철강왕 카네기와 록펠러 가(家) 출신의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와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에서 문근영과 가수 김장훈, 제주 출신 가수 김민석까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대중에게 '기부'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린다 게이츠 재단과, 수전 톰슨 버핏 재단을 비롯한 가족과 관련된 4개 자선재단에 각각 기증했다.

기부

철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린 카네기는 주로 교육 문화사업을 통해 기부를 실천했다. 그는 2천500여 곳의 도서관과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과 연구소, 5천여 개의 교회도 지어 사회에 기부했다.

에 살며 태안 어민에 게 수백 원을 기부한 가수 김장훈도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